

“대형소매점 대구 진출 막겠다”

문영수 정무부시장 의회 답변 포커스그룹 구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침

향후 외지 대형 소매점들의 대구 지역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대형 소매점들의 지역

내 진출을 어떤 방법으로 든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영수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용)의 ‘2005년

도 대구시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기일 의원은 “외지의 대형소매점(일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들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안내고 있다’는 지적(시정질문을 통해)이 있었는데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영수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당시 문제가 됐던 대형 소매점들이 보존 등기를 다했으며 따라서 등록세도 다 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시장은 대형 소매점의 경우 이중적 성격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반면 지역 경제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지 대형 소매점들의 지역 진출 문제점으로 물품의 현지 구매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고용창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한편 지난해 연말 현재 대구시 내 3천㎡ 이상 대형 유통시설은 모두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